

협회소식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태승 교수가 7월 1일자로 2년 임기의 우리 협회 제 23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2년간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회장은 현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7월 10일(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30여명의 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김태승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도서관법」 개정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으며 이를 바탕



으로 앞으로 새로운 협회 집행부와 사무국이 회원들과 함께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을 피력했다.

한편, 한상완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신기남 명예회장이 참석, 전임회장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 회장과 임원들의 앞날을 축하하였다.

2007년도 상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우리협회가 200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독서운동 캠페인 : 책 읽는 가족'과 관련해 2007년도 상반기 '책 읽는 가족'이 선정되었다.

총 273개 공공 및 점자도서관에서 선정한 총 395 가족에게는 한국도서관협회장과 각 도서관 관장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전달된다.

협의회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7년 7월 12일(목) 16:00~17:45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김형준(대구경북지구협의회), 이량순(광주전남지구협의회), 박성기(공공도서관협의회), 장석일(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김태식(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양덕수(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최충식(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손청기(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이순욱(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상 협의회), 이은철 부회장, 이경구 사무총장, 이용훈 기획부장, 유태형 관리지원과장, 신재은 재정보급



과장, 김태경 국제팀장(이상 사무국), (불참 : 김성득(부산 지구협의회), 김은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 회의 내용

가. 부회장 인사 말씀

- 사무국 조직을 회원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함.
- 중앙집중식에서 분권화, 분산화하여 협의회를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함.
- 협의회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를 최대한 활용
- 협의회 소식, 행사 등을 알려주고 상호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함.

나.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관련

- 이번 대회부터 협회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주관하기로 함.
- 개회식에서 협의회장을 소개하고 단상에 협의회기 및 스탠딩 배너를 설치하고 각종 인쇄물에 공동 주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공문, 주제발표논문집 등).
- 등록대를 각 협의회별로 설치하여 협의회 직원이 직접 담당하여 참가증을 교부하기로 함(사전에 협의회별 참가 인원 파악이 필요함).
- 세미나인 경우 각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지만 우리 협회의 전국도서관대회는 범 도서관계 행사이므로 많은 도서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함.
- 각 협의회는 협의회 행사에만 참가하는 전기업체명단을 협회에 제공하고 참가를 독려하기로 함.
- 대회 동안 협의회 회장단의 숙소를 제공하기로 함.

다. 협회에 각 협의회 사무국 설치 방안

- 매년 또는 2년간의 짧은 임기로 사무직원 및 사무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협의회는 협회와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라. 협의회 관련행사 참석의 범위와 수준에 관한 규칙(안)

마. 사무국장 회의 정례화

- 매년 4회 이상 개최
- 정기총회 전(예산 편성 전, 1-2월 중) 1회
-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기간 중 1회
- 필요시 2회 이상

바. 협의회 사무국장은 가급적 협회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 함(관심 있는 분야)

사. 기타

- 각 협의회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에 관중을 초월하여 서로 초청하여 참여
- 각 협의회별 연간 행사를 조정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차기 회의일자 : 2007년 10월 10일 저녁(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날)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 주최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가 8월 19일(일)부터 8월 23일(목)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미래를 위한 도서관: 진보, 발전, 그리고 협력(Libraries for the future: Progress, Development and Partnerships)”을 주제로, 150여개 IFLA회원국에서 약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들이 도서관·정보학의 새로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세계 300여개 유수업체가 참여해 도서관 관련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제품 등을 출품·전시하는 국제전시회도 열린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협회는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번에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40여명의 도서관인은 효과적인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사항 점검 등을 목적으로 7월 20일(금) 오후 3시 우리 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참가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무총장 등, 협회 사무국 방문

2007년 7월 12일(목) 오후 2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사무총장과 곽영훈 기획실장이 협회를 방문, 동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 전용 문자 음성변환 기록방식) 심볼 생성 도서 및 보조기기(보이스아이 메이트 : 인쇄물 음성 출력기) 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콘텐츠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도서관문화》에 보이스아이 심볼을 적용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경구 사무총장은 우리협회의 성격과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상황 등을 설명한 후 《도서관문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보와 설문조사 등을 제안하고, 《도서관문화》는 국공립사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이스아이 적용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협의회소식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59차 정기총회 개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6월 21일(목), 22일(금) 양일간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회원교 도서관장 및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6회계년도 세입·세입세출 결산보고와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었다.

또한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의 ‘판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과 류정섭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장의 도서관정책소개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우리협회 이경구 사무총장과 신재은 재정보급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5대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 임원 명단

- 회 장 : 박명진(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장)
 - 부회장 : 남권희(경북대학교도서관장)
박문갑(서울교육대학교도서관장)
 - 사무국장 : 장석일(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 총 무 : 장희주(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주사보)
- [사무국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 02-880-5312]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7차 관리자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7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강화 활동 방안’을 주제로 회원교 도서관 중간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 프로그램

〈주제강연〉

- 대학도서관 발전과 위상 강화 방안
/ 광동철(경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미래 대학도서관 역할의 전망 : USC 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정현(USC 한국학 도서관장)
-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백항기(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부장)
- KERIS의 주요사업과 현안 : 해외학술정보 사업을 중심으로
/ 조순영(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 소장)

〈교양강좌〉

-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 최정태(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기술 동향〉

- 소장자료의 디지털 보관 및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Espresso RDF Maker" / 김인중(에피루스 전무)
- 차세대 통합검색 엔진 : 360 Search + Vivisimo
/ 김정현(ProQuest 한국지사장)

- 링크시스템의 이해 / 김상권(이패스 대표이사)
- 대학도서관에서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 이동준(인터큐브 차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년도 학술세미나 개최



〈사진제공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6월 28일(목)부터 6월 29일(금)까지 신안 비치호텔에서 협의회 회원, 일반 및 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LIBRARIAN2.0과 전문도서관의 미래’를 주제로 11개의 주제발표와 전시가 있었다.

■ 프로그램

- 전문도서관 · 정보센터 마케팅 경영전략
/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문도서관의 Library 2.0과 정보서비스
/ 광승진(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Google Scholar Library Links Program과 Link Resolver
/ 최석용(주링크소프트)
- 특허통합검색관리시스템 소개
/ 김잔디(주위즈도메인)
- e-Book! New Concept!
/ 채동훈(주신원데이터넷)

- Smart Discovery
/ 김희일(툼스코포레이션)
- 고정밀 지식추출을 위한 Semantic 기술과 응용
/ 김영일(TRIZ Korea)
- 전문도서관의 연구성과(논문) 관리 사례
/ 김상준(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사례 : 기술정보에이전트서비스
/ 황재영 · 최순재(국방과학기술연구소)
- U-WIN(사용자어휘지능기반의 의미적 정보검색)
/ 최호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POSTECH Library 2.0 - 도서관 Portal과 Blog를 중심으로
/ 권태훈(포항공과대학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7월 12일(목) 고려대학교 CDL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도서관,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보환경과 매체가 급격하게 변화는 시대의 의학도서관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 프로그램

<1부 : 이용자를 움직여라>

- 웹에서 만나는 이용자
/ 이수정(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북카페? 도서관!
/ 이순애(분당서울대학교 병원)

<2부 : 사서가 움직인다>

- 투병과 환자 케어를 위한 정서적 지원, 독서치료프로그램
/ 심명애(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서울삼성의료원)
- 2007년은 UCC다! 그러나 CDN없는 UCC를 논하지 마라!
/ 하신(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국내 소식

개정 「저작권법」 시행

개정 「저작권법」(공포 2006.12.28, 법률 제8101호)이 2007년 6월 29일(금)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서관 등에서의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조제6항).

[출처 : <http://www.mct.go.kr>]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6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법률명을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별도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간행물 판매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가제 적용기간을 현행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했다. 한편 현재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해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도 도서관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으로 남게 됐다.



해외 도서관계 인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과 한상완 위원장 취임에 대한 축하메시지 전해주

지난 6월 도서관계의 오랜 바람이 담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행정, 운영방식과 국민들의 인식 등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3명의 민간위원은 행정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신하고 또 효율적이며 유용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 협회 직전회장인 한상완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은 것은 도서관계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상완 교수의 위원장 취임에 대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서관계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축하의 메시지와 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도서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해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작년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이사로 활동 중이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설과 한 위원장 취임과 같은 우리나라 도서관 사정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한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국제 도서관계 인사는 다음과 같다.

- Alex Byrne(IFLA 회장, University Libraria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 Claudia Lux(IFLA 차기회장, Director General of the Foundation Central and Regional Library Berlin, Germany)
- Gunnar Sahlin(IFLA감사, Director, National Library of Sweden, Sweden)
- Nancy Bolt(IFLA 이사, Nancy Bolt & Associates, United States)
- Maria Isabel Cabral da Franca(IFLA 이사, Chair of IFLA/Div.VIII and LAC Section, Grupo de Informacao e Documentacao Juridica Do RJ, Brazil)
- Gwynneth Evans(IFLA 이사, Canada)
- Nancy E. Gwinn(IFLA 이사, Director, Smithsonian Institution Libraries, United States)
- Shawky Salem(IFLA 이사, Chairman, Alex Centre for Multimedia and Libraries/Professor, Information Technology, LIS Dep., Alexandria University & KMI Dep., Beirut Arab University (BAU), Egypt)
- Rejean Savard(IFLA 이사, Professor, Universite de Montreal- EBSI, Canada)
- Donna W. Scheeder(IFLA 이사, Director, Law Library Services, U.S.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 Jacinta Were(IFLA 이사, Deputy University Librarian, University Nairobi Library, Kenya)
- Zhang Xiaolin(IFLA 이사, Executive Director, National Science Librar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 Dr. Wu Jianzhong(Director, Shanghai Library, 중국)
- Peter J. Lor(IFLA 사무총장)
- Magda Bouwens(IFLA 사무국, Office Manager)
- Sophie Felfoldi(IFLA 사무국, Web Manager)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및 국립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 현판식 가져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3일(금)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해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우리 협회 이은철 부회장 및 관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가졌다. 도서관연구소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진형 대국민 도서관 정보봉사의 기초를 제공하고 도서관 발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국가시책수립, 도서관서비스의 지침 및 기준제정,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장애인서비스담당자들의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장애인정보격차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과 디지털 레퍼런스에 관한 세미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국내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



비스(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참고상담서비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6월 25일(월)과 7월 9일(월) 각각 열린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 25일(월)에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환경의 개선에 관해 토론했다.

■ 프로그램

〈추진경과〉

- 작은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 김성화(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팀장)

〈주제발표〉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영숙(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장)
- 이재희(부천시립도서관 팀장)
-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봉기(경북대학교 교수)
- 이병연(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시지부)

7월 9일(월)에는 '국내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퍼런스 시스템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장·개선 방안과 미해결된 질의에 대해서도 공동 해결해 나가는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 프로그램

<주제발표>

- 미래도서관 발전모형으로서의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 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바람직한 국내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발전방향
/ 김휘출(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 사서)

<사례발표>

-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국내외 사례
/ 이선희(KISTI 연구원)
- 국내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향후 추진 계획
/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의 만남 개최



(사진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2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MBC 세계여성포럼과 함께 세계적 생태환경운동가이며,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

다』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여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서는 “라다크에서 발견한 행복한 삶의 조건”(The Path to Happiness : a journey through Ladakh)을 주제로 세계 생태환경 실태, 인간의 행복한 삶의 조건 및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박옥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의 “호지 여사의 생과 삶”,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를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

노원정보도서관, 국제업무제휴를 위해 일본방문



(사진제공 :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은 6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국제업무제휴를 위해 일본 치요다구립도서관을 방문했다.

벤치마킹을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치요다구립도서관을 비롯 우라야스중앙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등 일본의 우수 도서관을 방문했다.

또한 일본도서관협회를 방문, 일본과 한국의 도서관 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상호업무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기로 했다.

[기사제공 : 노원정보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2007 아시안컵 기념 축구 영화제 개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2007년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기념하여 '축구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구 영화제'는 7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와 4시 시청각실에서 1954년 월드컵 독일의 기적같은 우승을 그린 '베른의 기적'을 비롯해 축구를 주제로한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또한 '세계 축구 영웅들의 자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구 도서전도 종합자료1관에서 7월 한 달간 상시 전시됐다. [출처 : 뉴스와이어 6월 28일자]

성동구립금호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개최

성동구립금호도서관은 개관 1주년 맞아 도서관 옥상 하늘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6월 15일(금)과 22일(금)에는 '마에스트로 현악4중주단'과 바리톤 '박형준', '김지욱' 씨를 초청해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6월 29일(금)에는 '극단 씨앗'의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인형극 및 도서관 사진전 등을 함께 열었다.

금호·옥수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관한 금호도서관은 1년동안 장서 수가 17,000권에서 34,000책으로 2배가 늘었으며 대출된 자료수도 지난 1년간 140,000책으로 월 평균 11,000여 책이 대출되어 앞으로 지역의 지식과 정보의 요람으로 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성동구립금호도서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경기도 장애인 무료 택배대출 서비스 경기도 전역 확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택

배로 집까지 배달하는 '두루두루' 서비스를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두루두루' 서비스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소속 공공도서관에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회원으로 인증받고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민선 4기 도서관 정책 추진목표를 '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배지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도내 3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대전광역시, '책읽는 대전운동' 핵심사업으로 추진

대전광역시는 시민단체와 지역도서관 및 문화원을 연계해 시의 핵심사업으로 범시민 '책읽는 대전운동'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는 이 운동을 통해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읽는 대전운동' 추진본부는 출범 후 각급 기관단체별 책 읽기 릴레이 운동, 사랑의 책 기증운동, 가족과 함께 책읽기, 독서 퀴즈대회 등 민간운동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개최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추진본부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한 책읽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본부 산하에 지역사업분과, 시민단체분과, 개별사업분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고, 책읽는 대전운동 명칭도 공모하기로 했다.

[출처 : 뉴시스, 7월 2일자]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한들마을도서관과 도서관 운영 협약 체결



〈사진제공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자립형 작은도서관인 한들마을도서관과 7월 18일(목)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한들마을도서관의 도서관 운영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들마을도서관은 향후 2년간 어린이 및 일반도서 집단대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동부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영유아용 책꾸러미 200개 지원,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강사 인력 지원, 북스타트 운동 관련 특별행사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기사제공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김해시립장유도서관, ‘도서관 주도의 독서운동 방향’ 직원 교육 개최

김해시립장유도서관은 7월 11일(수)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외래교수인 이연옥 선생을 초청해 “도서관 주도의 독서운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운 독서가 가능



〈사진제공 : ©김해시립장유도서관〉

한 최적의 ‘독서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기사제공 :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금서 전시회 개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7월 한달간 출판·보급 금지 조치를 당했던 국내외 책들을 모아 ‘금서(禁書)의 역사’를 주제로 도서전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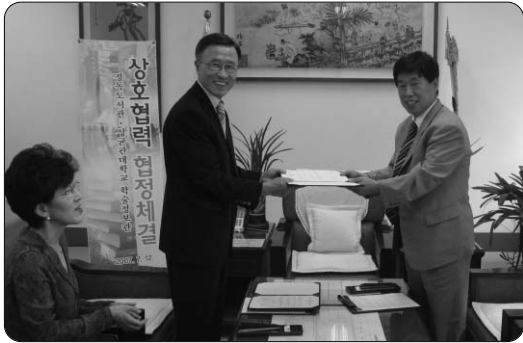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도서의 경우 유신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등 시기별로 나눈 금서 60권과 해외 도서의 경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등의 이유로 나눈 금서 60권이 전시됐다.

국내 도서 전시목록에는 『순이삼촌』(현기영),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모』(마이니치 신문사),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서울대 한국현대사연구회), 『노동의 새벽』(박노해), 『즐거운 사람』(마광수) 등이 포함되었다.

해외 도서로는 『동물농장』(조지 오웰), 『분노의 포도』(존 스타인벡), 『유토피아』(토머스 모어), 『카마수트라』(바츠야야나), 『물리타』(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종의 기원』(찰스 다윈) 등이 전시됐다. [출처 : 연합뉴스 6월29일자]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정독도서관, 상호교류협정 체결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정독도서관은 7월 12일(목) 정독도서관장실에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이번 상호 교류협정은 각각의 도서관이 정보서비스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상호 정보교환을 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두 기관은 자료의 상호대차, 원문복사,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통합검색 서비스를 각 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성균관대학교는 클래식, 재즈, 국악, 카드점, 미술 등의 동아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독도서관에 지원하고, 정독도서관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 한해 세미나실, 시청각실 등 부대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중앙대학교, 법학도서관 개관



〈사진제공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은 6월 30일(토) 법학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법학도서관은 법학관 1층과 2층의 6,600㎡ 규모의 시설에 법학도서 15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서가와 400석의 자유열람실, 영상세미나실, 시청각실, 자동검색-대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270석의 안정된 전용좌석을 제공하고 기타 스터디룸 2실과 미디어랩실을 마련했다.

한국점자도서관, 『육병일 관장 이야기』 출판 기념회 개최 및 소장도서 기관 회원대출 서비스 실시



〈사진제공 : ©한국점자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은 7월 9일(월) 올림픽 파크텔에서故육병일 한국점자도서관 초대 관장 10주기 추도식 및 『한국점자도서관 설립자 육병일 관장 이야기 : 그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광명의 소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故육병일 관장은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도서관을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의권익과 정보접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분이다.

또한 한국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에 한해 제공하던 대출 서비스를 기관으로 확대 '기간 회원 대출 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국내 소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 장기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기

관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단 서비스 대상 자료의 유형은 녹음도서(DAISY도서로서 CD 형태)로 한정한다.

[문의 : 한국점자도서관 자료관리팀 담당자 : 김보일, ☎ 02-3426-7411]

[기사제공 : 한국점자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읽기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2007 책 읽는 서울 :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대상 책으로 임성진 작가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를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7월부터 10월까지 행사 내내 '한책나무 키우기', '한 책 릴레이 한줄 감상쓰기', '한책 e-편지쓰기'를 진행한다. 또한 매달 넷째주 토요일 한 책을 주제로한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한 책 영화로 생각해 보기' 시간도 갖는다.

이외에도 8월 2일(목)에는 '한 책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며 8월(수)에는 '나만의 한 책표지 만들기', 9일(목)에는 '한 책 가족신문 만들기' 행사를 연다. 참여우수가족에게는 11월 행사 종료 후 상장 및 상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문화재단, 제6회 도서관학교 특별강좌 개최

느티나무문화재단은 '우리 아동문학에서 옛이야기의 자리매김'이라는 주제로 6월 28일(목)과 7월 5일(목) 양일간 제6회 도서관학교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강좌에서는 동화작가 임정자씨를 초청해 옛이야기가 오늘날의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와 현실 아동문학의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 봤다.

또한 비교문학자인 김환희씨를 모시고 여러 나라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옛이야기에 나타난 상징과 모티프에 대한 현재적 해석과 우리 옛이야기에 대해 비교문학적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예술도서관, 시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도서관' 행사 개최

어린이예술도서관은 7월 17일(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 공원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예술도서관은 '어린이문학연구회'에서 운영하며 어린이예술관련 전문서적과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만든 책, 미술작품 등을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찾아가는 도서관' 행사는 점점 도서관과 멀어지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도서관이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갈 책을 빌려주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행사로는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해 공원에 온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당일 대여하고, 당일 반납하는 행사, 그림 20점과 수제책 50여점의 전시회와 참가자가 직접 앨범책과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체험행사도 열렸다.

이 행사는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8월 한 달은 쉬고,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잠실석촌호수 공원에서 계속될 계획이다.

[출처 : 파이미디어 7월 9일자]

서울문화재단, 7월부터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프로그램 진행

서울문화재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시내 57개 공공도서관에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 읽는 서울' 캠페인은 2004년에 시작되어 31개 도서관이 연계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한 도



〈사진제공 : ©서울문화재단〉

서관 한 책 읽기'의 타
이틀로는 2005년 16개
도서관이, 2006년에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도서관
간의 네트워킹을 유
도해 26개 도서관이 참여
했고, 2007년에는
57개 도서관이 참여하
고 있다.

올해 주요 선정도서로는 가족애를 강조한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강남, 개포, 강동 등 7개 도서관), 차이와 다름을 주제로 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관악, 봉천 등 3개 도서관), 장애 가족이야기 『아주 특별한 우리 형』(성동 등 3개 도서관) 등이 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통해 각 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 등과 같은 <독서 강좌 및 특강>, <책 릴레이 돌려읽기>, <연극이나 인형극 공연 및 연극교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한 가족들 중 도서관의 추천을 통해 <책으로 만난 행복한 가족> 7가족 선정해 책 100여권을 선물하고 선정된 가족의 이름으로 문화소의 지역이나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문화재단]

■ 참여도서관

〈컨소시엄 진행 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노현도서관, 노원문화정보마당, 강서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 『30년만에 휴식』- 대치도서관, 즐거운도서관, 행복한도서관
- 『짜장면 불어오』- 청담도서관, 정다운도서관
-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숭실문화정보센터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 하지 않는다』- 관악문화관 · 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봉천2동작은도서관

『외로운 지미』- 구로꿈나무도서관, 구로꿈마을도서관,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동일도서 진행 도서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서대문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너도 하늘말나리아』- 송파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마당을 나온 암탉』- 영등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조각보 이불』- 광진정보도서관, 서초어린이도서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종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금천구립도서관

〈개별 진행 도서관〉

『가로 세로 세계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경찰 오토바이가 오지 않던 날』- 용산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구로도서관

『까만 달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남한산성』- 정독도서관

『내 아이의 즐거운 학교 박물관』-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달님은 알지요』- 남산도서관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고척도서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서대문구이진아기염도서관

『잃어버린 겨울방학』-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사금파리 한 조각』- 아리랑정보도서관

『선물』- 성북정보도서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어린이도서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복한 청소부』- 거마정보도서관

『수선된 아이』- 성내도서관

『숲, 자연학교에 가다』- 동작도서관

『연어』- 도봉도서관

『우리 집에 온 마고할미』- 노원어린이도서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랑면목정보도서관

『지붕 낮은 집』- 중계평생학습관

『책 먹는 여우』-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토끼마을 국화마을의 어린왕자 모모』- 양천도서관

『헬체어를 타는 친구』- 고덕평생학습관

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08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 총회 개최

2008년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이하 ICSTI) 총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하 KISTI)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지난 6월 프랑스 낭시에서 열린 ICSTI 2007 대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 50여 개국 과학기술 정보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KISTI의 최희운 지식정보센터장이 3년 임기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ICSTI는 195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 영국국가도서관(BL), 프랑스 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캐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소(CISTI),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TIB) 등 48개 국가 대표 과학기술정보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정보가 세계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ISTI는 ICSTI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정보를 무료로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오픈액세스 시스템과 월드과학포털사이트 공동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사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원]

KAIST,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KOASAS 시스템 구축

KAIST는 교수들이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코아사스(KOASAS, 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를 최근 구축했다.

KOASAS는 연구자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연구결과물을 직접 학교 정보저장 시스템에 올려 일반인들이 학술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2년 미국 MIT와 HP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디스페이스(DSpace) 시스템을 KAIST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형식의 연구성과물은 이 개방형 디지털 저장소에 수집, 저장, 배포된다.

[문의: <http://koasas.kaist.ac.kr/>]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보공개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 전략' 교육 개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6월 29일(금) 국가인권위원회 강의장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정보공개 모범 사례 및 쟁송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의 유형 및 특성 파악과 공공기관에서의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 프로그램

- 정보공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 모범 사례
/ 전진한(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 언론 환경의 변화와 정보공개에 새로운 경향
/ 성재호(KBS 탐사보도팀 기자)
- 정보공개 판례 속에서 찾아보는 정보공개에 올바른 방향
/ 하승수(제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화관광부는 우수 학술출판 활동 고취 및 지식문화 산업의 핵심기반산업으로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2007년도 우수 학술도서'를 발표했다.

선정대상도서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기초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중 우수 국역서로 올해에는 10개 분야에서 총 473종의 도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선정도서 가운데 문헌정보학 관련으로는 『독서치료 사례연구』(김정근 외 저, 한울)가 포함되었다.

이 책은 김정근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책읽기를 통한 정

신치료 연구실’의 7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독서치료의 ‘적용성’을 강조한 사례 연구이다.

필진으로는 부산대 김정근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은엽(김해시장유도서관) 사서, 김수경(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김순화(울산 중부도서관) 사서가 참여했다.

이 책은 우리 도서관 현장에 독서치료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낸 것으로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직접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개인 및 그룹에게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공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통계청,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통계청은 1963년에 국제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표준직업분류를 제정한 이래, 20년만에 개정하는 국제직업분류(ISCO-08)와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서관 사서는 “1. 전문가 >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 1812 사서 > 18120 사서”로 정리되었다.

[출처 : http://www.nso.go.kr/std2006/k07b_0000/k07bg_0000/k07bg_0000.html]

국외소식

IFLA, 차기회장 및 이사 선출



(차기회장 Ellen R. Tise)

국제도서관 협회 연맹(IFLA) 차기회장에 남아공 Stellenbosch대학의 도서관장이며,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인 Ellen R. Tise 씨가 선출되었다. Ellen Tise

차기회장은 오는 8월 더반대회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독일의 클라우디아 룩스(Cludia Lux) 신임 IFLA 회장을 보좌하여 활동을 시작하며, 2009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2011년까지 2년간 IFLA의 회장으로 일하게 된다.

또한 IFLA는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들 중 재선된 이사는 Gunnar Sahlin(스웨덴), Bob McKee(영국), Barbara J. Ford(미국), Réjean Savard(캐나다), Zhang Xiaolin(중국) 등 5명이며, 이외에 Barbara Schleihagen(독일), Danielle Mincio(스위스), Helena Asamoah-Hassan(가나), Joaquín Selgas Gutiérrez(스페인), Pascal Sanz(프랑스) 등 5명은 이사회원의 일원으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2007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2년간이다.

[출처 : <http://www.ifla.org/III/gb/2007/gb-results07.htm>,

<http://www.ifla.org/III/gb/2007/president-result07.html>]

미국, 연방 정부 독서 프로그램 “Big Read” 참가관 증가

전미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



(<http://www.neabigread.org>)

하 NEA)이 운영하는 “Big Read”사업에 점차 많은 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다.

“Big Read”사업은 NEA, 박물관·도서관정보 서비스기구, 민간비영리단체 ‘Arts Midwest’, 각 자치체 등의 기관과 그 지역주민이 하나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2007년 6월, 현재 참여 신청을 한 도시가 117개이며 기존의 72개 도시와 함께 약 200개 도시가 한마음으로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ea.gov/news/news07/bigreadCycle2.html>]

미국의회도서관, 자료 열화 조사에 전문가 초빙

미국의회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보존에 대한 연구를 위해 플로리다주립대학 스트리에겔(Andre Striegel) 교수를 초빙했다.

도서관은 도서, 잡지, 문서, 필름 등 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상당수가 셀룰로오스(Cellulose)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재로 되어 있어 자료의 열화나 보존, 수복 등을 위해 셀룰로오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리에겔 교수는 셀룰로오스로 구성된 자료의 열화와 부하 경감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원재료를 가공해 셀룰로오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셀룰로오스 분자는 자

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최종 가공품인 종이나 필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스트리에겔 교수는 가공 과정에서 셀룰로오스에 더해진 손상을 연구해 보다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과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열화가 진행된 자료를 초음파 측정용 통해 비파괴적 방법으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실시해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도 연구했다.

스트리에겔 교수는 LC에 초빙된 기간중 셀룰로오스의 연구 외에도 녹음·자기테이프의 열화 등 자료 열화에 관한 조연과 강연회 등의 활동도 함께 했다.

[출처 : <http://www.fsu.com/pages/2007/06/04/LOCTreasures.html>]

미국펜실베이니아도서관협회, 도서관의 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미국펜실베이니아도서관협회(The Pennsylvania Library Association : PALA)는 주내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약 500관을 대상으로 세금 투입과 지역경제에 준 효과를 투자대 효과(ROI: Return on Investment) 지표로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은 세금 1달러 당 약 5.5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만약 모든 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약 13억달러의 경제 손실이 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의 50%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1년간 약 4,000만명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는 원격 접근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연간 1,000만건의 원격 접근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http://www.pnewsire.com/cgi-bin/stories.pl?ACCT=109&STORY=/www/story/06-12-2007/0004606735&EDATE>]

2007년도 미국도서관협회 연차대회 개최

2007년 6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의 1주일간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제128회 미국도서관협회(ALA) 연차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28,635명이 참가해 과학기술, 프라이버시, 리더러시 등 도서관의 중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http://www.ala.org>)

아메리칸·인디언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ALA 회장(2007-2008)에 취임하는 로이(Loriene Roy)씨를 축하하는이벤트가 개최됐다.

또한 영화 "The Hollywood Librarian: A Look at Librarians through Film"이 상영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검열, 지적 자유, 그리고 문화·사회에 대한 사서의 영향을 타쿠펜터리로 그린 것으로 정식 공개는 9월 29일(토)로 예정돼 있다.

前NBA 선수이기도 한 빌 브래들리(Bill Bradley) 前상원의원의 기조 강연도 있었다.

여배우 줄리 앤드류스(Julie Andrews)는 ALA가 발간하는 도서관 잡지 《American Libraries》 100주년 기념 강연을 가지기도 했다. 이 강연에는 몇 천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어 별도의 강연회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연방 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법제에 관련해 사서들은 도서관의 예산 확충을 호소하는 활동을 펼쳤다.

연차대회 운영팀은 대회 종료 다음날인 6월 28일(목) 이번 대회에서 가장 특색있던 이벤트와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했다.

아메리칸·인디언

도서관 관련 기업 950사가 운영한 전시회도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출처: <http://www.ala.org/ala/pressreleases2007/june2007/acwrap07.htm>]

《IFLA Journal》,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 특집으로 다뤄

IFLA는 기관지 《IFLA Journal》 2007년 6월호 특집을 통해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소개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도 짐바브웨,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중남부 각국의 도서관계 동향과 더반 대회에서 논의되는 중요 의제 등을 소개하는 7편의 글을 수록했다.

Christine Stilwel 씨는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South Africa: an overview(남아프리카의 도서관·정보 서비스: 개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서관·정보 서비스 현황과 도서관정책, 정보자원, 서비스, 연수, 전문직제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Karin de Jager 씨는 "Towards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of Quality Assurance in South African Higher Education Libraries(남아프리카 고등교육도서관에 있어서의 서비스 품질 보증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남아프리카 고등교육위원회(CHELSEA)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한 기준, 규격, 모델 책정 작업의 진척 상황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짐바브웨에서 원주민의 전통적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 스와질란드 대학에서의 정보서비스의 개선 계획, 나미비아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정보서비스의 전개, 남아프리카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자매체의 영향, 나이지리아 여성 등의 정치 참가 촉진을 위한 도서관 역할 등이 다뤄졌다.

[출처: <http://www.ifla.org/iftaj/IFLA-Journal-2-2007.pdf>]

미국도서관협회를 지지하는 웹사이트 “i Lovelibraries.org” 오픈



(<http://www.ilovelibraries.org>)

미국도서관협회를 지지하는 웹사이트(Advocacy Web site) “i Lovelibraries.org”가 오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서관을 다룬 뉴스와 ALA 선정 도서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각지의 도서관이 제작해 Youtube(동영상 사이트)에 투고한 영상과, Flickr에 투고한 사진 등도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ala.org/ala/pressreleases2007/june2007/1107.htm>]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 학술 기관을 위한 연간 라이선스 계약 실시

미국의 저작권관리 단체인 저작권처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 CCC)는 고등교육기관이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계약서비스 “Annual Copyright License”를 시작했다.

서비스 대상 자료는 도서관 학술 잡지 외에도 전문 뉴스 잡지, 신문과 도서관 잡지의 타이틀, ISBN, ISSN, 출판사명 등의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이 서비스에는 현재 200여 곳의 학술출판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1,000여곳의 고등교육기관도 서비스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자나 학생 등 고등교육 기관의 구성원으로 자료의 이

용 범위는 저작물의 복사, 수업으로의 복제·배포, 강의록에의 전재 뿐만이 아니라, 전자화된 수업 교재에 수록과 또 학내 한정 전자 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각각의 단위로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수고와 시간,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출처 : <http://www.copyright.com/ccc/viewPage.do?pageCode=au143>]

간행전·미간행 학술정보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 “Nature Precedings” 오픈



(<http://precedings.na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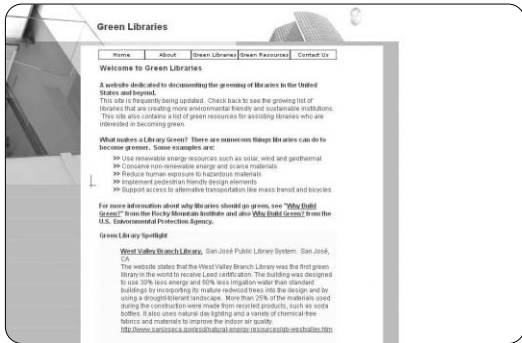
간행전이거나 미간행의 학술정보를 연구자가 공개·공유·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Nature Precedings”가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미간행 정보를 투고할 수 있다. 다만 게재여부는 간단한 심사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 코멘트나 태그가 생겨 디지털객체식별자(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 DOI)도 부여된다. [출처 : <http://precedings.nature.com>]

도서관의 환경보호를 위한 웹 사이트 오픈

도서관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를 모은 웹 사이트



(<http://www.greenlibraries.org>)

트 “Green Libraries”가 오픈했다.

이 웹사이트는 환경보호를 위해 도서관부터 시작 하자는 목표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도서관과 환경 보호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단체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미국의 시애틀도서관은 지역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으며 정원수는 빗물을 대형 탱크에 저장해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헤이든(Hayden)도서관은 건물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도서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웹페이지의 운영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출처 : <http://www.greenlibraries.org>]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사서 커뮤니티 WebJunction에 보조금 지원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WebJunction이 소프트웨어 교체 및 사이트 기능강화 등 도서관계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 WebJunction은 사서들의 정보공유, 문제해결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해 모인 온라인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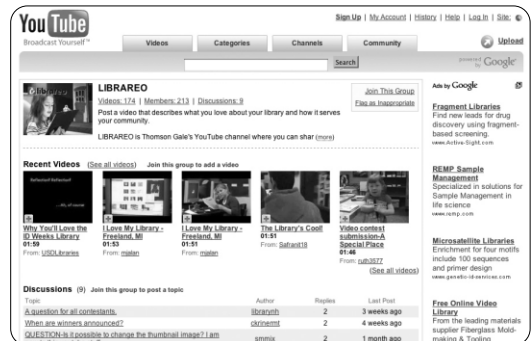
재단의 지원은 4년 동안 1,26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이는 OCLC의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 등을 통해 쓰여 WebJunction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2003년에 오픈한 WebJunction은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3년간 9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되었으며, 현재 2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기술자원과 같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과 도서관계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그룹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667.html>]

미국, ‘도서관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비디오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http://www.youtube.com/watch?v=KBjCZOGPEfw>)

미국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비디오 콘테스트 “I Love My Library!”의 수상작이 6월24일(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도서관협회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최우수작은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Dozier Middle School and Main Street 도서관의 “The Library Code”라는 작품으로 두명의 학생이 숙제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의 여러 자료와 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출처 : <http://www.gale.com/librareo/>]

2007 유네스코 직지상, 오스트리아 과학연구원 음성보관소가 수상

제2회 유네스코 직지상에 오스트리아 과학연구원의 음성보관소(Phonogrammarchiv)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청주시에서 열리고, 수상기관에게 3만 달러가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6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Pretoria South Africa)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 마쓰우라 고이치로(Koii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결정되었다.

또한 Phonogrammarchiv는 1899년 4월 설립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음악도서관으로 음성·영상기록의 보존 발전에 큰 공헌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24786&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캐나다 밴쿠버공립도서관 직원, 파업 결정

밴쿠버 시청 외근 노동자들의 파업결정에 이어 밴쿠버공립도서관 직원들도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밴쿠버공립도서관 직원 노조인 공공노조연맹(CUPE) 지부 '3-91'은 계약안 요구를 지지하는 파업 투표에 97%가 찬성해 공립도서관 직원을 비롯해 쓰레기 수거, 공원 노동자, 건물 검사인을 포함, 5,500명의 밴쿠버 시청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립도서관이 문을 닫게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공원 및 레크레이션센터의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또한 건물 검사와 다른 시청의 서비스들도 파업으로 파행의 위기

에 있다.

공공노조 지부 '3-91'은 밴쿠버 공립도서관 노조로서 로워 메인랜드에서 일곱 번째로 큰 시청 노동자 노조로 파업 결정 투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

밴쿠버 공립도서관직원노조 외에도 밴쿠버 시청 외근 노동자 노조 지부와 다섯 곳의 로워 메인랜드의 공공노조 지부도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96%와 89~94%가 파업에 찬성했다.

[출처 : 중앙일보 6월 27일자]

캐나다 게르후대학도서관, 참고서비스 기록 발표

캐나다의 오타리오주 게르후대학도서관(University of Guelph)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Docutek VR(SirsiDyinx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공한 VRS(video response system) 참고서비스의 기록 약 600건을 분석한 결과를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EBLIP) 잡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이용자가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용은 드물고 주로 사서가 사용하는 용어는 "periodical", "faculty", "catalogue", "resources", "interlibrary loan" 등이며 학생이용자는 "books"이나 "articles" 등 일반적인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의 속성에 대해서는 도서관 밖으로부터 질문해 오는 학생이 30% 이하이며 도서관 안에 있는 학생의 질문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도서관의 여러 기호나 표지등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의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는 이같은 분석의 결과에 근거해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관계의 강화, 직원의 기술 강화, 장서 확충, 도서관 기능 강화 등 5개의 영역을 나누어 앞

으로의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EBLIP/article/view/236/421>]

러시아, 옐친 대통령 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

러시아 푸친 대통령은 6월 19일(화) 故 옐친 前대통령의 이름을 딴 옐친대통령도서관을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에 건립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대통령 도서관 건립 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도서관 건립 승인을 통해 ‘러시아 연방 전역에 지부 설치’, ‘도서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조직’,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 건설하는 옐친대통령도서관은 2008년 개관을 목표로 러시아의 역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소장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kommersant.com/p775952/r_530/Yeltsin_Russian_presidential_library/]

스웨덴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과 함께 학술 연구 성과를 메타데이터로 집약하는 ‘Openaccess.se’ 시작

스웨덴국립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함께 연구 성과를 메타데이터로 만들어 지원하는 오픈액세스 운동 ‘Openaccess.se’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간행한 보고서, 회의록, 논문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메타데이터로 제작해 또 다른 연구자들이 검색,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대학은 우살라대학도서관(Uppsala University Library), 고텐버그 대학도서관(Gothenburg University Library), 룬드대학도서관(Lund University Library) 등이다.

현재 한 곳에서 모든 자료를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출처 : <http://www.kb.se/openaccess/english/projects.htm>]

중국, 2010년까지 20만권의 도서관 설치계획 발표

중국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0년까지 중국 전역에 20만 권의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대폭적인 도서관 설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06년에는 농촌지역까지 도서관 건립사업을 확대해 지금까지 6만6천 개관에 총 장서수 220만 권에 이르는 도서관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도시지역에 6,000개관, 농촌지역에 3만개에서 5만개 권의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7-06/14/content_6242911.htm]

일본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타이쇼 시대의 도서 제공



(<http://kindai.ndl.go.jp>)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7월 3일(화)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타이쇼 시대의 도서 15,700여 권의 제공을 시작했다.

이번 공개하는 자료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

는 저작권이 소멸된 타이쇼 시대의 도서 약 90,000권의 17%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가운데 2008년 100주년을 맞이한 브라질 이민에 관련 홍보 자료 「브라질 이식민지 사진첩」이나,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조사기관에 의한 각종 보고서 「만주철도 조사 자료」, 타이쇼 시대의 여행 가이드 「교토 유람 안내」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웹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의 분야별 구성은 사회과학 분야 약 37%, 산업 분야 약 19%, 자연과학 분야 약 14%이다. [출처: <http://kindai.ndl.go.jp>]

서 제작을 주도하는 등 대학보유기술 사업화를 촉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6월 20일(수)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하계세미나에서 있었다. [기사제공: 포항공과대학교 홍보팀]

인사동정

포스텍 황남구 과장, '커넥트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기술사업화센터 황남구 과장이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유공자 표창에서 최우수상(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커넥트 코리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이 공동으로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남구 과장은 포항공과대학교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였으며, 기술사업화센터로 자리를 옮긴 후 대학 최초로 발명자, 특허사무소 및 대학 특허 부서를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기술이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센터 연차보고

신설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 개관 : 2007. 6. 22(금)
- 면적 : 4,457㎡
- 설계 : 디바이엠건축사사무소
- 관장 : 심재현
- 주소 : (410-8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7번지
- 전화 : 031-931-2145
- 팩스 : 031-931-2022
- 홈페이지 : www.goyanglib.or.kr
- 휴관일 : 매월 1.3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특징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장서 35,000여권을 갖춘
지하1층에는 외국자료실·보조서고·전시코너·쉼터·카페테리아가,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장애인

자료실·정기간행물실이, **2층**에는 종합자료실·사무실·회의실이, **3층**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있음.

화정어린이도서관



- 개관 : 2007. 6. 27.(수)
- 면적 : 1,002.10㎡
- 관장 : 강위성
- 주소 : (412-2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신로 18번지
- 전화 : 031-931-2123
- 팩스 : 031-931-2131
- 홈페이지 : www.koyanglib.or.kr/
- 휴관일 : 매주 1, 3주 월요일
- 특징 :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 22,000여권의 장서를 갖춘, **지하1층**은 서고·기계실이, **지상1층**은 보물단지·아기도서관이, **2층**은 책사랑·사무실·동아리방이, **3층**은 어울림터(시청각실)·쉼터가 있음.

주엽어린이도서관

- 개관 : 2007. 6. 28.(목)
- 면적 : 2,049㎡
- 설계 : 디바이엠건축사사무소
- 관장 : 염선영
- 주소 : (411-83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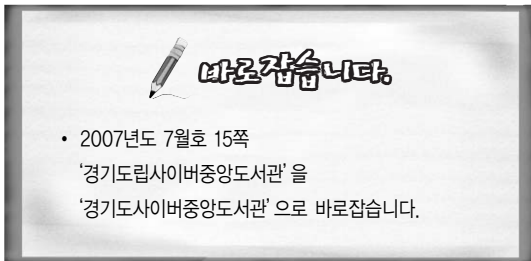
- 전화 : 031-931-2112
- 팩스 : 031-931-2121
- 홈페이지 : www.goyanglib.or.kr
- 휴관일 : 매월 2,4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특징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장서 21,000여권을 갖춘,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가, **1층**에는 보물단지(아기책, 그림책, 영어원서, 목점자도서 비치), 이야기방·나비잠이, **2층**에는 책사랑(주제별어린이도서, 참고도서, 부모도서 비치)·빛그림동화방·전시방·옛이야기방·멀티동화방·동아리방이, **3층**에는 어울림터·쉼터·사무실이 있음.

행신어린이도서관



- 개관 : 2007. 6. 29.(금)
- 면적 : 대지면적 1,050.50㎡, 연면적 1,687.72㎡
- 설계 : 디바이엠건축사사무소
- 관장 : 이도연

- 주소 : (412-2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04번지
- 전화 : 031-931-2133
- 팩스 : 031-931-2141
- 홈페이지 : www.goyanglib.or.kr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특징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점자도서 189점, DVD 328점, 국내서 20,820권, 외서 303권의 장서를 가진. **지하1층**에는 서고가, **1층**에는 보물단지(유아, 아동도서 및 유아방, 수면방, 이야기방, 생태환경 특화자료 코너)가, **2층**에는 책사랑(어린이도서 및 비도서)·동아리방이, **3층**에는 어울림터(강당)가 있음.



향후도서관계행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보이스아이 시연회

- 일시 : 8월 10일(금) 14시~16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내용 :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 지원을 위한 소리로 읽어주는 보이스아이 심볼 생성 도서의 필요성과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용방법 교육
- 문의 : 담당 송양미, ☎ 02-859-8288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10월 10일(수) ~ 12일(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